



충남지부 반도체 부품사 첫 노동조합, 하나머티리얼즈지회 설립!

2026년 5월 16일(토) 9시 충남지부 하나머티리얼즈지회 설립총회가 진행됐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천안과 아산 각각에 사업장을 둔 반도체 부품사다. 지난 1월 1차 상담을 시작으로, 3월까지 총 10번의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3월 16일 준비위원회로 조직체계를 전환했다.

이후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설립준비를 진행하던 중, 사측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한 소지품 검사와 불이익 위협 등 현장 압박을 진행했다. 이에 4월 말 사측과의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과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꾸준한 선전전과 조직화 활동을 통해 5월 16일 설립총회를 성사시켰다.

설립총회 당일, 신규지회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과 한온시스템아산, 현대산업, 현대모비스EBS, 현대모비스천안, 현대트라닉스지회, 경기지부의 티씨케이지회가 참석했다.

이어 이상호 지부장의 대회사로 통해 신규지회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금속노조 미조직위원장 김형수 부위원장 역시 격려사로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조합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 규칙을 제정하고, 지회 임원(지회장 이재현, 수석부지회장 박흥길, 부지회장 김남욱, 사무장 강하늘)을 선출했다. 지회 임원 선출 후, 이후 투쟁계획을 결의하고 요구안을 확정했다.





설립총회 참석한 모두가 함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주역인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없다' 외치며, '24시간 멈추지 않고 현장을 지키며 쏟아부은 열정'에 대한 보상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 누군가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이동을 감내'하던 일터를 바꾸고,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일터'를 만들고, 우리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겠다 선언하며 설립총회를 힘차게 마무리했다.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일터!
우리의 미래를 위해!